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¹⁾

김 민 정(서강대학교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평가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체제가 채택된 방식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역사과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역사과 평가체제는 그 목적에 따라 학업성취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력인증시험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사회과의 다른 평가과목에 의한 구속 요건 없이 그 자체로 역사과의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 내용의 규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응시할 수 있고, 자신의 한국사 관련 학습 능력을 확인하고 인증받는 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체득한 역사적 이해 뿐 아니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 안팎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사과 지식과 기능을 수준별로 특정하는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다. 따라서 응시생의 한국사 학습능력을 수준 별로 평가하려는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급수별 평가 내용과 수준에 위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목표, 위계화, 역사과 평가체제, 개선방안

I. 머리말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세계를 보는 관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강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둘러싼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능력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도

1) 이 논문은 2010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과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상존하고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심화와 함께, 역사적 기억과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역사적 이해와 사고능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역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과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새삼 주목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세계사나 동아시아사의 맥락과 긴밀하게 관련지어 한국사를 학습하고, 역사 학습을 통해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역사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의 연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관점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고조되고 있는 역사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학교교육에서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과목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의 역사적 소양과 능력을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역사(歷試)로 약칭)은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와 역사 지식 및 능력을 검증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의 요구에 부응하여 만들어졌다.²⁾ 歷試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학습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사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歷試를 실시하여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역사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게 함으로써 역사시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응시자 스스로 역사 학습능력을 제고하게 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현재 11회까지 시행된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어느 정도 성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歷試가 적절한 평가 내용과 수준으로 이루어진 평가체제인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歷試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상훈 등(2007)은 歷試 제1회 시험을 대상으로 평가 문항을 급수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사 평가 문항의 유형과,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평가문항 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학습 수준과 발달 수준에 따라 한국사 평가 문항을 계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김수미(2007)와 최현주(2009)는 각각 歷試 1, 2회 시험 문항과 1~5회 4급 문항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정현(2009)은 歷試의 평가문항을 포괄한 역사과 평가문항의 위계성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종전의 연구는 歷試에서 출제된 문항을 개별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개진하였으나, 실제 歷試 출제 방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

2) 歷試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historyexam.go.k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歷試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歷試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사 능력의 내용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국내외 역사과 평가체제와 비교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급별 내용 수준 및 출제 범위 설정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추후 歷試 출제진을 위한 출제 지침 마련과 응시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국내외 역사과 평가체제 비교 분석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사과 평가체제는 평가 목적에 따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입학시험, 역사능력시험 등으로 대별된다.³⁾ 이 장에서는 역사과에서 평가 목적이 구별되는 각 시험의 평가 내용과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였다. 언어와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외국 사례는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었다.

1. 학업성취도 평가

한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평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연 1회 실시되었다. 이 학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다섯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였다. 2010년 성취도평가에서는 대상 학년과 과목이 일부 조정되어, 고등학교에서는 대상 학년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변경되었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한정하여 평가가 실시되었다.⁴⁾ 성취도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히고 있는 성취도평가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이다.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보정 교육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서 역사 과목을 평가하는 사례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한국에 상응하는 시험이 없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사례는 김민정(2010), 미국 주 단위 고등학교 역사과 평가체제의 실제. *歴史教育論集*, 44, 115-136 참조.

4) 학년과 과목 조정의 이유는 2010년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2011년 12월에 일반에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2008년 성취도 평가들에 기초하여 논의되었다.

-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 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한다.
- 질 높은 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방법을 선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일종의 준거참조평가로, 교과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과 성취도평가의 내용 영역이 구성되었다. 따라서 일반사회, 지리, 역사 영역별로 문항 출제 비율은 1:1:1로 설정되었다.⁵⁾

앞서 밝혔듯이 2010년 성취도평가에서는 종전의 시행 학년과 행동영역과 같은 평가 영역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평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은 4, 5학년 전 과정과 6학년 1학기 과정을, 중학교 3학년은 1, 2학년 전 과정과 3학년 1학기 과정을, 고등학교 2학년은 1학년 전 과정을 평가내용 범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회과 평가 범위를 제시한 바는 <표 1>과 같다.⁶⁾

〈표 1〉 2010년 한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사회과 평가범위

학년	평가범위
초등학교 6학년	· 6학년 1학기 “3. 대한민국의 발전 2)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Ⅰ 분단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까지
중학교 3학년	· 3학년 “Ⅲ. 시장 경제의 이해 3.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제”까지 · 국사: “Ⅷ. 개화와 자주 운동 2. 개항과 개화 운동”까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성취도평가 범위를 사전에 공지하였다. 평가 범위를 공식적으로 안내한 것은 수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이유 뿐 아니라, 점차 고부담시험(high-stake test)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취도평가의 위상을 반증해주고 있다. 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묻는 지표로 기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평가 범위에 대한 문의나 논란에 대비하여 사전에 교과별 평가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공지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도평가에서만 역사 영역을 포함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역사 영역에 대한 성취도평가를 더 이상 치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2010년부터 종래 10월에서 7월로 성취도 평가 시행시기가 조정됨으로써 내용영역별 출제비율도 종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6) www.kice.re.kr (2010년 6월 7일 공지, 2010년 10월 28일 검색)

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 내용과 함께 행동영역에 대한 평가 준거에 기반하고 설계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행동영역은 지식·이해, 문제해결, 의사소통 세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행동영역의 불명확한 구분에 따른 출제의 어려움과 평가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정은영 외, 2010, pp. 18~20) 이에 따라 2010년 연구에서는 성취도 평가의 행동 영역을 ‘기억’, ‘이해’, ‘분석’, ‘활용’으로 나누고, 세부 요소를 설정하였다. 각 행동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다.(김혜숙 외, 2010, pp. 301~302)

〈표 2〉 한국 학업성취도 평가 사회과 평가영역

행동 영역	세부 요소	내용
기억	재생	주요한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며,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나 원리와 관련된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이해	설명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지식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제시된 개념이나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찾거나 예시할 수 있다. 또한 상징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정보를 언어적인 정보로 나타낼 수 있으며, 언어적인 정보를 상징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
	예시	
	표상	
분석	비교	제시된 자료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된 정보를 분류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오류분석	
활용	일반화	제시된 정보나 선행지식을 활용하여 상황 또는 예상되는 변화를 추론하거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규칙, 절차, 원리 등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정보나 선행지식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추론	
	명세화	
	의사결정	
	문제해결	

성취도평가를 위한 사회과 행동영역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평가 문항 분석, 교육목표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재설정되었다.(김혜숙 외, 2010, p. 304) 하지만 위와 같이 재설정된 행동영역 역시 역사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역사과 성취도평가 문항의 경우 종전의 행동영역 구분에 따른 문항 출제의 어려움이 위의 행동영역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⁷⁾ ‘기억’에 의존하는 단순 사실의 암기와 이를 확인하는 평가는 역사과에서 오랫동안 비판

7) 이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역사가 사회과 속에 한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교육과정 체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 과목에 해당하는 행동영역 설정의 필요성과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일반에 해당하는 행동영역으로 진술되었다.

받아온 터이다. 또한 ‘이해’와 ‘분석’이라는 행동 영역 모두 자료에 기반을 둔 역사 문항의 형식을 띠고 있고, 선행지식의 활성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양자의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전의 행동영역별 구분에 따른 문항 출제 비율은 지식·이해 : 문제해결 : 의사소통 영역이 6 : 2 : 2 혹은 6 : 3 : 1로 설정되었다. 행동영역의 내용을 고르게 출제하여 자칫 지식·이해 영역에 집중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2010년 성취도평가에서는 개정된 행동영역에 따라 출제되었으나, 구체적인 행동영역별 문항 출제 비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평가영역별 문항 출제 비율을 교육과정의 행동영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였다. 내용영역인 일반사회, 지리, 역사가 동일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행동영역의 비율을 반영하여 출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김혜숙 외, 2010, p. 303) 행동영역별 문항 출제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출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후 실행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이하 NAEP)⁸⁾는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비견되는 시험으로, 주요 교과목에 대한 미국의 초·중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이다. NAEP은 학업 성취수준 뿐 아니라 교육의 여건과 교수-학습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성적표(Nation's Report Card)를 작성함으로써 교육 실태 파악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도입되었다. NAEP 평가 과목 중 읽기와 수학 영역은 격년별로, 역사를 포함한 다른 과목들은 시간과 자원이 허락하는 대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⁹⁾

한국의 성취도평가에서 역사문항은 사회과 평가체제의 일부로 구성되어 역사의 주제, 시기, 행동영역에서 역사과목에 특정한 평가요소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NAEP 미국사는 미국사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사 학습의 목적과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AEP 미국사 평가영역을 미국사의 주제, 미국사의 시기, 미국사에 대한 이해와 사고 방법으로 나누어 평가문항 구성을 제시한 바는 <표 3>과 같다.

8) 상세한 정보는 <http://www.nces.ed.gov/nationreportcard/ushistory/>와 U. S. History Framework for the 2010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참조

9) 국가수준 NAEP에서 미국사가 평가 영역에 포함된 연도는 2001년, 2006년, 2010년, 2014년이다.

〈표 3〉 NAEP 미국사 평가문항 구성

학년	주제							
	1. 미국 민주주의의 변화와 지속		2. 인물, 문화, 아이디어의 집합과 교차		3. 경제적, 기술적 변화와 사회, 사고, 환경과 맺는 관련성		4. 세계 속 변화하는 미국의 역할	
4	25		35		25		15	
8	30		30		20		20	
12	25		25		25		25	
학년	시기							
	초기 ~1607	1607 ~1763	1763 ~1815	1801 ~1861	1850 ~1877	1865 ~1920	1914 ~1945	1945 ~현재
4	20	15	15	15	10	5	5	15
8	5	10	20	15	20	10	10	10
12	5	10	15	10	10	15	15	20
학년	행동영역							
	역사 지식과 관점				역사적 분석과 해석			
4	40				60			
8	35				65			
12	30				70			

(단위: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사 주제의 주제별 평가문항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주제 2(‘인물, 문화, 아이디어의 집합과 교차’)의 비중이 낮아지고, 주제 4(‘세계 속 변화하는 미국의 역할’)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2학년에서는 네 주제 영역에서 고르게 평가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미국사 시기별 평가문항 분포는 학년별 편차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미국사의 초기시기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초기시기에 대한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신 12학년에서는 1865년 이후가 전체 문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역사가들이 역사에 접근하는 사고방식, 이해 방식, 인지 과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NAEP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이해와 사고 방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문항 개발의 지침이 되는 두 가지 미국사 이해의 방법으로 ‘역사 지식과 관점’ 및 ‘역사적 분석과 해석’ 영역으로 분류된다. 전 학년에 걸쳐 역사적 분석과 해석 영역에 대한 평가가 60-70% 정도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학년이 될수록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한

국의 성취도평가에 비해 NAEP 미국사의 행동영역은 두 영역으로 그 구분이 간명하므로 이에 따라 학년별 평가문항의 위계를 조절하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과 같은 성취수준으로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NAEP은 기초(Basic), 능숙(Proficient), 우수(Advanced) 세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와 달리, NAEP은 미국사 영역에서 각 단계별 성취수준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손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정은영 외, 2010, pp. 70~71)

2. 대학수학능력시험

1994년 시작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수준의 평가이다. 수능은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¹⁰⁾

이처럼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 정상화라는 평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능의 평가 영역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객관식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수능 사회탐구영역의 역사과 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현재 평가 과목은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탐구 행동영역 목표는 <표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행동영역 평가목표¹¹⁾

평가목표	특성
가. 개념·원리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이나 지식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단순 사실 암기는 제외) 기본적 지식의 변형 능력이나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가?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사실, 개념, 원리 등)을 구체적인 사례나 문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나. 문제 파악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문제 등 탐구해야 할 주제를 찾을 수 있는가? 주어진 자료의 주장, 진술, 사고방식에 내재된 기본 전제나 가정을 찾아낼 수 있는가?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http://kice.re.kr/ko/board/view.do?menu_id=10029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pp. 6~8.

평가목표	특성
다. 탐구 설계 및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자료에서 개념이나 요소들의 연관 관계를 추론하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가? 조사 또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는 적합한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가? 주어진 탐구 문제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집된 자료를 분석, 분류,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가?
라. 자료 분석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자료의 규칙성과 경향성을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 및 이론적 연관성을 통해 해석, 추정할 수 있는가? 자료를 탐구 목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가?
마. 결론 도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 검증의 절차와 방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인과 관계나 법칙성 또는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 또는 체계화할 수 있는가? 가설 검증이나 결론, 일반화, 모형 해석에 이르는 절차와 입증 자료, 또는 필요조건을 추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가?
바.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과 가치, 실제 현상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의 쟁점을 식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선택한 대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실천적 행위의 원리나 기준을 추정하거나 차이를 변별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 가치 선택과 의사 결정에 내재된 의도와 원리를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수능관련 연구의 경우 출제과정과 평가결과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수능의 평가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은 문항에 기초하여 분석과 추론만이 가능하였다. 또한 수능의 행동영역별 비율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대신 출제문항을 분석하여 추정한 경우를 참조할 수 밖에 없다. 최상훈(2007)은 수능 문항 분석 결과를 통해 수능이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평가목표를 근거로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정보공개법의 시행으로 수능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한 기초 연구가 요구된다.

미국의 대학 입학 전형 시험 중 하나인 SAT는 전미대학협회(The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고, 민간교육평가기구인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전미대학협회에 따르면 SAT 미국사 시험은 학생들의 “콜럼버스 이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사의 이해” 및 “역사학습의 근거가 되는 사회과학 개념, 방법,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세계사 시험은 세계사의 주요발전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고, 사료의 적용과 평가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역사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과 해석 및 일반화 능력을 평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수능에 비해 과목별 평가 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편이다.

SAT는 대학예비수준에서 평가문항 출제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표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SAT 미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출제 내용

항목	과목	미국사(United States History)		세계사(World History)	
		영역	비율(%)	영역	비율(%)
분야별/지역별	정치사		32-36	지구사적 · 비교사적	25
				유럽	25
	경제사		18-20	아프리카	10
				남서아시아	10
	사회사		18-22	남부 및 동남아시아	10
				동아시아	10
시기별	지성 · 문화사		10-12	아메리카(미국 제외)	10
				대외 정치	10
	콜럼버스 이전-1789년		20	선사시대부터 서기 500년까지	25
				500년부터 1500년까지	20
	1790년부터 1898년까지		40	1500년부터 1900년까지	25
				1900년 이후	20
	1899년부터 현재까지		40	통시대적 내용	10

SAT 역사 과목은 행동영역별로 미국사가 6개, 세계사가 5개의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사 문항은 ‘용어 · 개념 · 일반화의 이해’, ‘기본적 역사 지식의 암기’, ‘미국사에 있어 중요 사건의 이해’와 같이 역사 내용과 관련된 평가 요소와 함께, ‘자료 분석과 해석’, ‘자료와 개념의 연결’, 자료의 평가와 같이 ‘자료를 다루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세계사 문항에서도 유사한 평가요소를 찾을 수 있다.(김민정, 2006)

SAT가 평가 내용과 행동 목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의 수능이 세부적인 평가체제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양국의 수학능력시험이 고부담시험으로 인식되는 비중이 다른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역사능력시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과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점검하고, 교수 · 학습의 효과를 가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시험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들 수

있다. 이는 학교와 학생이 속한 공교육의 체제 속에서 교육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학교의 역사과 평가를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과는 달리 응시생이 지닌 학력을 평가하고 인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에서는 역사교육 강화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평가체제를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006년 처음 시행되었다. 歷試를 주관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시험의 목적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 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 나. 전 국민이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한다.
- 다.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 라.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마. 한국사에 관한 논술 문제를 개발하여 탐구력 증진과 통합논술시험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까지 歷試 목적은 위의 다섯 가지였으나¹²⁾, 10회 이후 제시된 歷試 응시요강에서는 ‘마’항이 빠져있다.

歷試의 모든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문항으로 급수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문제지나 수험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 초·중·고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 전공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역사는 고·중·초급 3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급별로 성적에 따라 2개의 세부 등급을 주어 전체 6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급수별 출제범위는 급수에 상관없이 상고사부터 근현대사로 볼 수 있다. 급수에 따라 시대나 주제를 차별적으로 강조하거나, 내용별 문항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응시생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평가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평가요소로 제시된 목표준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歷試의 목표준거는 역사 지식의 이해, 연대기의 파악,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결론의 도출 및 평가 등 6가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역사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html/about_outline.asp) 2010년 10월 28일 검색 결과

교육의 목표준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목표준거별 문항 비율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출제자용 출제매뉴얼에서도 문항 비율에 대한 원칙을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의 歴試는 일본의 역사능력검정시험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일본의 역사능력검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역사능력검정’(이하 歴檢)은 1999년 시작되어, 전국 단위 시험은 연 1회, 지역 단위 시험은 연 2회 실시되고 있다.¹³⁾ 歴檢은 전지구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기르고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 歴檢의 등급별 평가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일본 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평가 내용

평가 등급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문항형태	문항 수
1급	일본사·세계사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에 한하지 않는 넓은 범위의 지식	4지 선다형	20
			論述	8
			記述	2
2급 (일반)	일본사·세계사	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지식이며, 비교적 고도의 역사 지식 요구	4지 선다형	45
			記述	5
3급 (고·일반)	일본사·세계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역사 지식	4지선다형	50
준3급	일본사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역사 지식과 그 이상	4지선다형	50
4급 (중)	역사 기본	일본사와 세계사를 합친 시험 역사 상식 문제	4지선다형	50
5급 (초·중)	역사 입문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기본적인 일본사	3지선다형	5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급부터 3급까지는 일본사와 세계사의 양쪽 모두 응시할 수도 있고, 자신 있는 1과목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자국사 능력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세계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역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歴檢의 등급 안내는 시험의 목적과 수험자의 학습정도, 각급의 수준과 같은 측면에서 다각도로 설명되고 있다. 즉, 시험을 보려는 목적이 아래 중 한 가지일 경우 응시하려는 歴檢의 적절한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13) 자세한 것은 일본 역사능력검정협회 홈페이지(www.rekiken.gr.jp) 참조

〈표 7〉 일본 역사 능력 검정 시험 평가 등급 안내

시험을 보려는 목적	평가 등급	자신의 학습 정도
-	1급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나, 전문가에 필적하는 역사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역안내사시험의 과목을 면제를 받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의 과목 면제를 받고 싶다.	2급 (일반)	고등학교의 역사 과목은 자신 있는 과목이다.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느끼고 있거나, 역사에는 꽤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입시의 내신서를 위하여 歴檢을 취득하고 싶다.	3급 (고·일반)	고등학교의 역사 과목을 이수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역사 지식은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입시의 내신서를 위하여 歴檢을 취득하고 싶다.	준3급	중학교에서 역사는 자신 있는 과목이다.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중학교 입시의 내신서(성적표)를 위하여 歴檢을 취득하고 싶다.	4급 (중)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기본적인 역사지식은 있다고 생각한다.
-	5급 (초·중)	초등학교의 역사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역사지식은 있다고 생각한다.

歴檢의 평가문항은 우리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운 역사지식을 중심으로 출제되지 만, 다른 한편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의 역사적 배경과 텔레비전 역사물, 소설 등을 통해 익숙한 사건에 관해서도 폭넓게 출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응시생들의 대중적이고 다양한 역사 이해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歴試가 여러 특전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일본 歴檢 역시 응시생의 역사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역사 학습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내재적인 보상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전을 약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정도인정시험이나 통역안내사시험의 일부 수험과목을 면제해 준다는 대학 입시 등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 과목 면제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¹⁴⁾ 하지만 한국의 歴試와 마찬가지로, 행동영역에 해당하는 목표 설정과 분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각 등급별 예시 문항을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歴檢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재를 발행하여 응시생들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14) 歴檢 2급 이상의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의 수험과목 「일본사」, 「세계사B」가 면제된다. 歴檢 「일본사 1급」, 또는 「일본사 2급」의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 시험의 「일본사B」가, 歴檢 「세계사 1급」, 또는 「세계사 2급」의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의 「세계사B」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Ⅲ. 평가목표에 기초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체제 개선안

歷試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한국사능력이 우수한 인재의 선발이 아니라, 응시생의 역사과 학습 능력이 일정한 준거에 도달하면 도달수준에 대한 능력을 검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歷試의 급별 평가 내용은 인정해주는 한국사능력을 대상으로 평가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위계화하여 급수별 평가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평가요소를 포함한 역사의 평가 내용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급수별 평가 내용의 위계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 내용 목표의 설정

歷試의 급별 평가 내용이 중복과 위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하고,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체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歷試의 평가대상인 ‘한국사능력’을 수준별로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사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의 역사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습내용 요소 및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설정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歷試의 평가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0회까지 시행된 歷試의 초급, 4급, 3급은 각각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사 내용을 대상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한국사능력이 국가수준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 구성을 위해 수행된 기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주요 학습요소를 살펴보고(김정호 외, 2005), 歷試의 평가 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주요 학습요소를 기반으로 歷試의 수준별 평가 내용 요소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사 주요 학습요소에 기반한 歷試 평가 내용요소

	시기	학습요소
초급	선사·고대	한반도의 선사시대 생활, 도구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 청동기 문화, 단군신화와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각국의 성립과 특징 삼국의 건국 이야기와 전성기, 삼국의 생활과 문화,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 통일신라와 발해의 생활과 문화, 삼국, 발해와 통일신라를 빛낸 인물들, 삼국시기와 남북국시기 외국과의 교류
	고려	후삼국의 주요 인물과 고려의 통일, 불교와 불교문화, 귀족들의 생활과 문화, 주변 국가와의 문화교류, 대외 관계와 거란·몽골의 침략, 외침의 극복, 원간섭기 이후 사회 변화, 고려의 주요 인물과 문화재

	시기	학습요소
	조선	조선의 건국 주체와 특징, 유교에 기초한 국가 운영, 세종대의 한글 창제, 문화와 과학의 발달, 신분제와 사회생활의 특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발발과 극복, 양란 이후 조선의 변화, 조선의 주요 인물과 업적, 조선 전후기 주요 문화재, 실학자들과 그들의 업적, 민란과 사회 개혁의 노력, 서민문화
	근·현대	외세의 접근과 우리의 대응, 개항과 사회 변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을사조약과 국권피탈, 의병 투쟁, 3·1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무장 독립 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분단, 6·25전쟁,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 민주화 운동, 경제 개발, 남북 교류와 통일을 향한 노력
중급	선사·고대	선사시대 유물·유적과 사회상, 청동기 시대 유물·유적과 사회상, 단군신화와 8조 법금, 철기시대 유물·유적과 사회상, 부족연맹왕국과 삼한의 성장, 고구려의 발전과 대외관계, 백제의 문화 발전과 교류, 신라의 골품제도와 사회상, 삼국의 경쟁과 충돌, 가야의 유물과 유적, 삼국의 유물과 유적, 통일신라 불교 중심 사회와 문화, 장보고와 신라의 대외 교역, 대조영의 발해 건국 및 발전, 발해의 유물·유적과 사회상, 지방 세력의 성장과 후삼국의 성립
	고려	후삼국 통일 과정, 고려의 통합 정책, 광종의 개혁 정책과 방향, 시무 28조, 문벌귀족 사회 성립과 변화, 전시과 제도, 고려 신분제에 따른 생활상, 고려청자와 귀족 문화, 불교 사원과 경제생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거란·여진과의 대외관계, 무신정권의 성립, 최씨 정권 등장, 만적의 난, 삼별초와 대몽항쟁, 불교의 발달, 역사서의 편찬, 성리학 도입, 원간섭기의 정책과 공민왕의 반원 자주개혁,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개혁방안,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위화도 회군
	조선	조선 건국 세력의 특징과 배경, 중앙정치 기구와 3사, 훈민정음과 과학기술 발달의 배경, 4군 6진과 국경, 사림의 성장과 지방 지배 질서, 붕당정치의 발전과 변질,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구현(가례, 족보, 향약), 조선 신분제도와 토지제도에 따른 사회상, 사대교린정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발발과 영향, 광해군의 외교 정책, 양란 후 사회 변화, 영정조의 탕평책, 농법의 발달, 신분제도의 변동, 수공업과 장시의 발달, 실학의 갈래와 특징, 서민문화 발전의 배경과 양상, 서학과 동학, 세도정치의 특징, 흥경래 난, 임술민란
	근·현대	양요, 강화도 조약, 개화운동과 척사운동,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청일 전쟁, 을미사변, 독립 협회, 대한제국 성립, 을사조약, 의거활동, 의병전쟁, 무단통치, 문화통치,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활동, 실력양성 운동, 소작쟁의, 노동쟁의, 신간회 활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8·15 광복과 분단, 신탁통치, 남북 단독정부 등장, 6·25 전쟁, 4·19혁명, 5·16정변, 유신체제,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경제성장과 노동문제
고급	선사·고대	도구와 생산력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 사적 소유와 분화, 씨족 사회의 형성과 변화, 계급과 권력의 발생, 민족 문화의 시원과 고조선, 초기국가의 형성 배경, 삼국의 성립과 대립, 가족과 사회 지배 구조의 특징, 왕권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불교와 유학의 영향,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의 불교문화, 신라와 발해의 대외 관계, 통일신라의 발전, 진골귀족의 권력 독점과 6두품의 성장, 토지 소유권과 수조권
	고려	고려 통일의 의의와 통합 정책, 귀족 관료 체제의 확립,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 고려의 대외 관계, 대몽항쟁, 고려청자와 불교문화, 문벌 귀족, 유학과 불교의 교육·사회·문화적 영향, 귀족 사회의 모순, 북방민족의 침입과 저항, 원간섭기 고려의 통치체제의 특징, 권문세족의 집권, 고려말 정치 경제 상황과 개혁 방안, 고려시대 가족 및 여성의 지위

	시기	학습요소
	조선	양반 관료 체제의 발전,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성리학적 사회 운영 원리와 대외 관계의 원칙, 15-16세기 문화 발달과 특징, 봉당정치의 발전, 과전법, 생산력 발전과 농민 분화, 화폐경제의 발전,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서원과 향약, 지주전호제의 발달, 양반사회 분화와 서민의 지위 향상,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삼정의 문란, 농민반란과 조선의 개혁방안, 실학과 사회 개혁 방안
	근·현대	개항과 강화도 조약, 정부의 개화 정책, 위정척사와 임오군란, 개화파와 갑신정변, 한말 열강의 압력,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배경과 영향, 외세의 경제침략,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독립협회, 을사조약, 의병전쟁, 자강운동, 신분제의 폐지, 서구 문물과 문화의 도입 및 사회생활의 변화, 근대 문물 도입의 양면성, 1차·2차 세계대전의 영향,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 민족자결주의와 3·1운동, 아시아의 민족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노동운동·농민운동, 봉오동·청산리 전투,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1930-40년대의 항일무장투쟁, 해방과 건국준비위원회, 군정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의 성립,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이승만 정권과 4·19혁명, 5·16군사 정변과 유신체제,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경제개발 계획, 통일정책의 변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중전의 기초연구에서는 학교급별로 다뤄야 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역사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학교급에서 '3·1 운동'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 각 학교급의 학습 수준에 적절하고 구별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만 학습 내용과 평가 내용의 위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표에서 제시된 역시 평가 내용은 시론적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歷試의 초급과 중급 시험은 각각 한국사 입문과정과 한국사 기초심화과정을 평가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한국사 이해 능력은 초·중·고 학교급에서 학습한 한국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준의 歷試 평가 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 개발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재설정될 수 있다. 歷試가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시험으로 성격이 규정되지는 않으나, 상당부분 학교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성취기준 연구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평가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였다. 교과별로 학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성을 상술한 '성취기준'과 이에 따른 성취도를 구분하여 평가 내용, 도구, 채점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01~2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개발·보급되었다. <표9>는 2008년에 연구 개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중 역사과 내용의 일부이다.(박은아 외, 2008)

〈표 9〉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부분 발췌)

학교급	성취기준	평가기준		
		상	중	하
초	513. 삼국의 발전 과정 및 상호 경쟁을 그림, 지도, 연표로 표현한다.	삼국의 발전 과정을 역사 지도와 연표를 통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삼국의 전성기를 역사 지도를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삼국의 전성기를 역사 지도를 보고 골라 낼 수 있다.
중	824. 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추출하고 이를 부여, 가야의 경우와 비교한다.	울령제, 관동제 정비, 행정구역 재편, 불교 수용이 부족장 세력과 왕권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고대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과 연맹왕국의 특징에 관하여 왕권과 부족장의 권력 관계를 토대로 비교·설명할 수 있다.	부여와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말할 수 있다.
고	1021. 조선 후기에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로 향하는 모습을 근대 사회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로 향하는 모습을 농업, 상업, 광업의 발달 과정 속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서 농업에서 광작 경영, 상공업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학교 내 학습평가 뿐 아니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도 교육청 수준의 학력평가 등 다양한 역사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지침을 제공해준다. 무엇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습 내용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평가 도구별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정·재조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歷試에서 한국사능력의 요소와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개발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서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거나 이를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歷試 초급은 초등학교를 위해 설정된 성취기준에 중급은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해 설정된 성취기준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설정할 수 있다.

성취도평가에서 설정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도 歷試 평가 내용 설정에 지침을 제시해 준다. 2010년 성취도평가체제의 변화에 발맞춰 교과별 평가들을 재구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2003년에 설정되어 성취도평가의 준거가 된 50개의 성취기준이 성취도평가 문항 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고,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정은영 외, p. 20) 사회과 평가 내용영역이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구성된다는 대원칙은 변동이 없으나, 종전의 성취기준 대신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과 세부 성취기준을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공통적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성취기준은 해당 주제에서 도달해야 할 내용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세부 성취기준은 문항 개발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화하였다. <표10>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성취도평가를 위해 설정된 성취기준 중 역사과 내용의 일부이다.

〈표 10〉 학업성취도 평가 사회과 성취기준 (부분 발췌)

주제	초등학교	
	성취기준	세부 성취기준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개항 전후 외세의 침략과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 및 대한 제국의 수립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전후 시기 외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조상들의 대응을 파악한다. -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 농민 운동 등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 파악한다. - 대한 제국의 수립 과정과 외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달라진 사회 모습에 대해 이해한다.	- 개화기 새로 들어온 근대 문물과 이로 인해 달라진 사회 모습에 대해 파악한다.
	국권 침탈 과정과 여러 갈래로 이루어진 독립 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갈래로 이루어진 독립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일제의 수탈과 근대 문물의 확산이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정책 및 그에 대한 저항에 대해 파악한다. - 일제 시기 근대 문물의 확산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주제	중학교	
	성취기준	세부 성취기준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개항 과정과 개항 이후 근대 개혁 운동과 열강의 침략에 맞선 주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대외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과 조약의 특징을 파악한다. - 개항 이후 근대적 개혁 운동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외세의 침략에 맞서 다양하게 전개된 한말의 주권 수호 운동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대 상황과 연관 지어 파악한다.
	일제 강점기 국내외의 다양한 민족 운동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국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전개되었음을 이해한다.
	신문물의 수용에 따른 사회와 문화의 변화상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이후 유입된 새로운 문물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를 이해한다. -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나타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성취도평가를 위한 역사 영역의 성취기준(NAEA)은 초등학교급에서 27개, 중학교 국사와 세계사 영역을 위해 59개가 설정되었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성취도평가에서는 사회(역사)가 제외되어 고등학교 성취기준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급과 고급 평가 내용의 설정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개발 연구 결과와 함께, 학교급별 학습 내용의 위계화와 관련된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김한중, 2005; 이병희, 2000). 하지만 2007년 이후 개정된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교육 과정에 직접 대응하거나 교육현장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歷試 평가 내용을 설정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사능력을 구성하는 시대별, 주제별 분포가 적절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개발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歷試의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歷試 수험생들에게 평가내용을 친절히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의 설정은 급수별 평가 내용의 계열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

2. 급별 평가 문항 구성 현황과 개선 방향

歷試는 시행 초기부터 초급·중급·고급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급별로 시행되었고, 고급은 성적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중급은 3급·4급, 초급은 성적에 따라 5급·6급으로 평가되었다. 역사의 등급별 평가 내용은 시행 회수가 늘어가면서 수정 보완을 거쳐 <표11>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평가 내용

시험 구분	평가 등급	평가 내용	
		2007년(제1회)	2011년(제11회)
고급	1급	역사 기본 지식 및 적용, 전문적 역사 지식, 창의적 문제해결 및 논리적 글쓰기 능력	한국사 전문 과정으로 전문적인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
	2급	교양 한국사 학습 수준, 역사 기본 지식 및 적용, 창의적 문제해결 및 논리적 글쓰기 능력	
중급	3급	고등학교 학습수준, 역사 기본 지식, 창의적 문제해결 및 논리적 글쓰기 능력	한국사 기본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4급	중학교 학습수준, 역사 기본 지식,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시험 구분	평가 등급	평가 내용	
		2007년(제1회)	2011년(제11회)
초급	5급	초등학교 학습수준, 역사 상식,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
	6급	초등학교 학습수준, 역사 기본 지식	

위 표에서 보이듯, 2011년 급별 평가내용은 2007년 제1회 역시 시험 당시 안내와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회 시험 당시에는 5, 6급 수준에서 초등학교 학습 수준을 평가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0회 이후 초급 시험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기초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10회까지는 평가등급별 내용을 학교급과 대응시켜 제시하였으나, 현재는 초, 중, 고급의 수준을 한국사의 입문, 기본심화,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고, '논리적 글쓰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歷試의 급별 평가 수준을 안내할 때는 초급과 고급 응시생과 같이 다양한 연령과 학습 수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응시자의 수준, 준비 정도, 응시 목적을 병기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歷試의 등급별 평가 수준은 <표1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평가 수준: 개선안

시험 구분	평가 등급	평가 내용	응시 목적
고급	1급	대학교 전공 역사 학습 능력	대학의 한국사 전공 수준의 심화된 이해 능력을 평가받고 싶다.
	2급	대학교 교양 역사 학습 능력	행정고시·외무고시 응시자격을 얻고 싶다. ¹⁵⁾ 대학교 교양 역사 수준의 한국사 이해 능력을 평가받고 싶다.
중급	3급	역사과 고등학교 졸업 능력	국비유학생시험·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국사시험, 전문연구요원선발시험 자격을 얻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한국사 이해 능력을 평가 받고 싶다.
	4급	역사과 중학교 졸업 능력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한국사 기본 이해 능력을 평가받고 싶다.
초급	5급	역사과 초등학교 졸업 능력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한국사 기초 상식을 평가받고 싶다.
	6급		

15) 歷試 2급 이상 합격자에게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각 급수별 평가 내용은 평가의 수준과 함께 응시하려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응시자 본인의 한국사 능력이 중학교 졸업 시 갖게 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중급을 선택하여 응시한 후, 3급의 한국사능력을 인증 받도록 유도하는 제시 방식이다. 학교 급별 졸업 자격과 유사한 한국사 능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사 능력의 위계와 歷試의 특전을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이 본인이 선택해야 할 歷試의 등급 수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歷試 등급별 평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은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급별 위계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동시에 급별 평가 내용이나 평가 형식을 세밀하게 고안함으로써 급별 문항 수준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歷試의 고급 수준에 대한 평가 내용과 범위 설정이 정교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본적인 범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한국사 학습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급 문항의 평가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고급 수준의 문항 출제를 위해 학습해야 할 기본 사료를 설정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출제된 역시 문항을 살펴보면, 예술작품, 지도, 도표, 그림, 표, 사진 등의 자료가 풍부하게 활용되어 왔다. 자료에 기반을 두어 분석, 해석,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과 같이, 한국사 전문과정을 평가하는 고급 수준에서는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문항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원사료나 가공된 사료를 연결하여 문항을 출제할 때 평가 대상이 되는 사료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NAEP 미국사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기초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두 번째 취임연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네 개의 자유론,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등 원사료 목록은 수험자가 해당 평가가 측정하는 평가 내용을 응시자가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한국사 평가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통해, 한국사의 기초적이고 주요한 중심 사료에 대한 학습을 진작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등 한국사 전 시기의 주요한 기록을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기록 중에서 대학 수준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한국사학습을 진작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I~V』(김철준 외, 1984)에서 시기별 주요 주제와 기초 사료를 제시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한국사 심화단계에서 한국사 학습을 위한 기초 사료의 선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책의 경우 발간된 지 이미 25년 이상 되었고, 이후 다양한 연구 성과가 여러 기록들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봤을 때, 歷試의 고급 문항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사교육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절감된다.

두 번째, 서답형 문항을 포함하여 문항 형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歷試의 출

발 당시 문제의식 중 하나였던 '논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탐구력을 증진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통해 고급 역사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歷試는 주어진 학령에서의 학업성취도 측정이나 대학입학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다르다. 歷試는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고, 국가기관에 의해 한국사능력을 인증받는 시험이다. 따라서 歷試는 이와 같은 평가체제의 성격에 맞게 고급 수준의 평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야만 한다.

일본의 歷檢에서는 세계사를 포함하고 있고, 서답형 문항을 통해 고급사고력과 표현력을 측정하고 있다. 한국의 歷試는 한국사에 한정되어 있고, 모든 수준에서 선다형으로 한국사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능력검정, 미국의 학업성취도평가(NAEP), 중국의 대학입학시험 등의 사례는 서답형 평가 문항을 통해 응시자들의 심화된 역사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 과정에서 활용되는 세부 능력들을 평가하고 있다. 대규모 시험의 경우, 평가 시간과 채점의 용이성, 출제범위의 포괄성 때문에 선다형 문항이 선호되지만 전체 평가 문항의 일정 정도를 할애하여 서답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또한 단순인지나 기억 문제 뿐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을 요구하는 논술형 문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歷試 시행 초기에 서답형 문항이 시도되었으나,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3회 두 차례에 걸쳐 1급과 2급 시험에서 출제된 각 7개의 서답형 문항은 100점 만점에 23~25점을 차지하며 한국사능력을 평가하는 전체 문항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서답형 문항 출제가 중단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출제와 채점의 전 과정을 관리한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충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단위 채점을 위한 합숙 채점의 과정에서 채점 시간과 인적·물적 소요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서답형 문항 채점 결과에 대한 신뢰도, 즉 채점자간 신뢰도와 채점자내 신뢰도 확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고급 수준의 歷試 문항에서 서답형 문항을 배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歷試 고급 문항의 변별도를 확보하기 위해 서답형 문항 출제와 채점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답형 문항의 온라인 채점 가능성을 타진해 보거나¹⁶⁾, 채점기준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채점자 훈련을 체계화하며, 채택채점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행평가 문항을 출제·채점하고 있으므로, 주관기관간의 연계와 협조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16) 성태제 등의 연구(2010, pp. 49~51)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사회과 평가 문항 중 온라인 채점이 가능한 경우는 단답형 중에서 답이 정형화되어 있는 문항으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문항에서 보기와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문항의 경우, 정답이 하나밖에 없거나, 지문을 읽고 교과서 및 수업시간에 사용하였던 단어를 정답으로 쓰게 됨으로 온라인 채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탕평책'이라는 역사 용어를 묻는 대신, '탕평책의 내용'을 정해진 분량으로 쓰라고 한 문항과 같이, 답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점을 유보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IV. 결론

이 연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평가 목적에 비추어 평가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역사의 평가체제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연구들을 넘어서서 歷試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평가체제를 고안해 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역사과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능력시험 등 평가 목적별로 구별되는 평가체제 중 한국, 미국, 일본의 역사과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내용 설정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歷試의 경우 한국사능력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에 따른 평가 내용 설정과 위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나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습 내용을 대상으로 한 성취기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歷試의 평가내용목표 설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치러진 歷試 문항 중 6~9회 문항의 평가 목표와 내용 범주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짝하여 이루어졌다. 지면관계상 급별 평가문항의 시대별, 주제별, 목표준거별 분석 결과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歷試 연구는 평가문항에 대한 사후 분석에 치중해왔다. 이는 평가출제와 결과에 대한 역시 자료의 비공개에 기인한 것이다. 歷試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 자료를 공개하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주관기관과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歷試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평가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양적 자료의 경우 통계분석을 통해, 질적 자료의 경우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결과를 유목화하여 평가 목적과 분석 의도에 맞게 유의미한 결과를 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출제자의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고, 출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 때 歷試의 목적과 이에 부합하는 평가문항 출제를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歷試를 보다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평가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국사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 김민정(2006). 미국의 역사교육과 평가 - SAT Subject Tests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12, 27-42.
- 김수미(2007). 제1·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분석과 문항의 방향. **역사교육연구**, 6, 177-227.
- 김정수(2008).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목표 준거와 문항 반응 분석-3급 문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김정호 외(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한중(2005). 역사교육 계열화를 위한 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0, 79-120.
- 김혜숙·박가나·최준채·정은영·최인봉·김희경·김소영·유진은(2009).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9-9-2.
- 김혜숙·박가나(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사회과 평가영역 설정 연구. **교육과정 평가연구**, 13(2), 281-308.
- 박선미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연구-고등학교 사회, 국사 1학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01-7.
- 박은아·김민정·이정우·김혜숙(2008).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3학년~10학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8-5.
- 오정현(2009). 역사과 평가 문항의 위계성 검토. **역사교육연구**, 9, 97-144.
- 이병희(2000).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내용의 계열화. **역사교육**, 76, 103-135.
- 이흥열·김종훈(2009). 초등 역사학습 평가의 실태와 새로운 방향 모색-학교 수준의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9, 7-39.
- 성태제 외(2010). **학업성취도평가 서답형 문항 컴퓨터 채점화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10-1.
- 정은영 외(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별 평가 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0-7.
- 최상훈(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사영역 평가목표의 개선방안. **역사교육연구**, 6, 133-175.
- 최상훈·오정현·김정수·이승준(2007).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항 분석 및 계열성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7년도 한국사연구지원 결과보고서.
- 최현주(200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문항의 분석 및 비판적 검토: 1~5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논문접수 : 2011-05-01 / 수정본 접수 : 2011-06-09 / 게재승인 : 2011-06-21

ABSTRACT

Developing Principles for improving the Korean History Competency Tests

Minjung Kim(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inciples for developing a better evaluation system in the Korean History Competency Test(the Test, in short). To do so, I focus on the domain and tasks which the Tests intend to evaluate. While the Tests have been emphasized regarding the significance and benefits recently, there has been found little research on th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Tests.

To conduct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Test system, I examin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in the field of history evaluation systems such as 1) national assessments of educational achievement on school-based national history in Korea and the U. S, 2) scholastic aptitude tests in Korea and the U. S., and 3) history competency tests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ells us that evaluation domain and cognitive tasks found in each test should be customiz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purpose. The Korean History Competency test, most of all, needs to redefine the scope and levels of Korean history competency and to be classified in terms of its domain and sequence. For this, it would help national-curriculum based learning objectives and evaluation standards from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criteria. This study also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especially for making the advanced level test items reliable and adequate to the competency level itself.

Improving the adequacy and credibility the current Test system, it is also suggested that data related to the evaluation process should be released to professionals who may engage in collaborative efforts to improve the Test system.

Key Words : the Korean History Competency Test, test scope and level, evalu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Korean History Competency Test

